

# 농생명 기술 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20주년 기념 미래비전 선포식 개최

전주시 출연기관인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김상남, 이하 연구원)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농생명 기술 혁신을 통해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내 놓았다.

연구원은 12일 '설립 20주년 기념 미래비전 선포식'을 열고 지난 20년간의 연구 성과를 종합 정리하고, 함께 열 어갈 미래 20년의 중장기 전략 방향을 발표했다.

연구원은 설립 20주년을 맞아 농생 명 산업의 구조적 전환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연구원의 방향을 새롭게 정 리했다.

실제로 최근 기후 위기 심화와 인구 감소·고령화, AI 기반 푸드테크·스 마트농업·바이오헬스 산업 등 융합 형 산업의 부상으로 나타나는 농생명 산업의 구조적 변화는 연구기관에 보 다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농생명 산업을 선도 하는 지역 혁신 거점 연구기관'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전주시와 전북특별 자치도의 농생명 산업 발전을 견인하 는 정책·연구·사업 허브로서의 역 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원은 △지역 농생명 자원 개발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및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12일 '설립 20주년 기념 미래비전 선포식'을 열고 지난 20년간의 연구 성과를 종합 정리하고, 함께 열어갈 미래 20년의 중장기 전략 방향을 발표했다.

지역 △미래 성장 인프라 및 역량 강 화 △지속가능한 경영 체계 구축의 4 대 중점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연구원은 지역 농생명 자원 개 발 및 고도화를 위해 전주 농생명 자 원의 기능성과 활용 가치를 높이고, AI 기반 생육 데이터 확보와 스마트 재배기술 실증, 기능성분 표준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수오지 향형 기술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기능성식품과 바이오헬스, 화장 품, 반려동물 산업 등 확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맞춤형 실증, 품질 평가, 공동브랜드 구축, 글로벌시 장 개척 등을 포괄하는 전주형 기술사 업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단계별 성장 경로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 '그린 바이오 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고도 화'를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미래 성장 인 프라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시 설 현대화 △AI 기반 실험데이터 관리 시스템 △산업 연계형 테스트베드 운 영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함으로 써 시간과의 개방형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연구원은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ESG 기반의 거 버넌스 △전략과제 및 성과관리 시스 템 고도화 △조직 유연성 강화 △유관 기관 및 민간 파트너십 확대 등을 추 진함으로써 유연하고 책임감 있는 조 직으로 도약한다는 각오다.

이에 앞서 연구원은 지난 20년간 전 주시가 설립한 농생명 소재 연구기관 으로서 지역 교육 농생명자원을 기반 으로 기능성소재를 개발하는 한편, 사 업화를 통해 지역 농생명 산업의 선순 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지 난 20년 동안 △국가 및 사책연구과제 수행 161건 △특허등록·출원 120건 △특허 자산 48건 △국내외 SCI(E)급 논문 116편 발표 등의 성과를 거뒀으 며, 최근 6년간 특허 기술이전 12건과 공동브랜드 개발 21종, (시)제품 128 건, 기업 애로기술 289건 지원 등 지 역 농식품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이끌 어왔다.

김상남 연구원장은 "함께 만든 성과, 함께 여는 미래 20년을 위한 비전 선포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연구원의 전략적 방향을 명확히 하고, 정책·산 업·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에 요구하는 실행력을 갖춘 연구기관으로 농생명 산업의 전환과 성장을 주도해 나가고자 하는 연구원 의 의지"라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인권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

전주시, 세계인권선언일 기념 '인권공감 문화행사' 성료

전주시가 인권공감 문화행사를 통해 시민들과 함께 인권의 의미 를 되새기고, 인권 존중의 가치를 공유했다.

시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전주시청 강당과 전북대학교로상 점가 버스킹존, 시청 로비 책기둥 도서관 등 전주시 일원에서 펼쳐 진 '2025 인권공감 문화행사'가 성 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인권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 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세 계인권선언일(12월 10일)을 기념해 시민들이 인권의 가치를 보다 친 근하게 느끼고, 일상에서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먼저 지난 11일 시청 강당에서 열 린 인권 특강에서는 문형배 전 헌 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강사로 초 청돼 '헌법소원과 민주주의, 그리 고 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특강에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의미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권이 가지는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며 깊은 공감을 이끌어 냈다.

또한 이날 특강에 앞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주제로 한 샌드 아트 공연이 펼쳐져 인권의 메시 지를 시각적으로 체험하기도 했다.

이어 12일에는 전북대학교로상점 가 버스킹존에서 인권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이날 공연에는 장애인 연주단체 '느루걸음 앙상블'의 감동적인 연 주와 재즈 공연이 어우러지며, 다 양성과 존중의 가치를 음악으로 전하는 무대가 펼쳐졌다.

여기에 이틀간 전주시청 로비 책 기둥도서관에서는 오전과 오후 매 일 2차례씩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작한 옴니버스 영화 '별별이야기 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강사로 초 청돼 '헌법소원과 민주주의, 그리 고 인권'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특강에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지입차량 가산세 부담 최소화 홍보

전주시는 최근 지입차량 및 기계 장 비 취득 후 신고 기한을 잊어버리거나 놓쳐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증 가함에 따라 관련 납세자의 가산세 부 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중 홍보를 펼 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운수업체 및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지입차량과 굴삭기·지게차 등 기계 장비를 취득하고도 신고 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는 사례 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유가보조금 지 급 청구 및 취득세 신고 청구에서 '꼭 알고 내자! 지입차량·기계 장비 취득 세' 홍보 안내문을 배부 또는 비치하 고, 온라인 배너 등을 통해 홍보활동 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화물협회와 건설기계협회, 세무 사회 등 관련 단체 및 협회에 협조 공 문을 발송해 취득세 안내 홍보물을 게 시토록 안내하고, 안내 문자 발송 등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아이돌보미 20명 추가 채용

전주시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도 시로 나아가기 위해 아이 돌봄 인력을 추가 채용기로 했다.

시는 올 연말까지 아이돌보미를 20 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 세 이하 아동의 경우 일 2시간 이상 이용할 수 있으며, 전주시의 경우 월 평균 700여 가구가 이용 중이다.

아이돌보미 활동을 희망하는 경우 120시간의 이론·실기 교육과 16시간 의 현장실습 등 양성 교육을 이수한 후 서류심사와 인·적성 검사, 최종 면접 등을 거쳐야 한다.

모집 기간은 12월부터 오는 18일까지 로, 전주시역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 관인 '전주시 가족센터'에 방문해 서 류를 접수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은 전북아이돌 봄광역지원센터(063-254-0289)와 전주 여성인력개발센터(063-231-2346)에서 진행되며, 교육 이수 후 활동 시 내일 배움카드를 통한 교육비를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다.

단 아동 보육·교육, 의료인 등 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이들은 사전 양성 교육을 받지 않고 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관광 활성화사업 지속추진

전주시는 지역관광진흥조직(이하 전 주DMO)이 11월에도 관광 활성화를 위 한 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DMO는 △Art Walk@Jeonju △전 주맛집투어패스 등 미식과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함 으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관 광 활성화 분위기를 확산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퓨전 국악공연인 'Art Walk@Jeonju'는 오는 15일과 22일, 28일 이중호수와 덕진공원, 한옥마을, 팔복 예술공장에서 공연을 이어가게 된다.

전주DMO는 또 지난 2021년부터 이어 온 대표 사업인 '전주맛집투어패스' 운 영을 통해 미식 관광 활성화도 나눈다.

전주맛집투어패스는 지역 명인(名 人)과 소상공인, 청년 창업가, 인기 맛 집 등을 연계해 20% 할인된 요금으로 관광객이 전주의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31개 참여 업체와의 상생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이 핵심이며 현재 쿠팡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예산안 심사 회기 착수

전주시의회의가 집행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한 회기에 들어간다.

이번 회기는 오는 17일 제425회 제2 차 정례회 개회를 앞서는 1차 본회의 를 시작으로 내달 18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올해 집행부 행정에 대한 각종 사안 을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는 18일부터 26일까지 이어진다.

감사는 이남숙 위원장과 장병익 부 위원장, 행정위원회 김동현(삼천1· 2·3, 효자1동), 김성규(효자2·3·4 동), 최명권(송천1·3동) 의원, 복지한 경위원회 김정명(동서학, 서서학, 평화 1·2동), 윤혜정(우아1·2, 호성동), 이국(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 문화 경제위원회 송영진(조촌, 여의, 혁신 동), 이보순(비례대표), 이성국(효자5 동)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세혁(비 례대표), 김현덕(삼천1·2·3, 효자1



이남숙 위원장

최명철 위원장

동), 최서연(진북, 인후1·2, 금암동) 의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가 진행된다.

이번 감사에서는 민선8기 4년 차의 전주시장 공약 이행과 사업추진의 실 효성, 인사 문제, 각종 사업에 대한 국 비 확보,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예산 문제, 경제활성화 대책 등 다양한 내 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27일부터 내 달 3일까지는 각 위원회 차원의 안건

심사와 현정활동 등이 이어진다.

또 내달 4일부터 8일까지는 우범기 전주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이 계 획돼 있다. 같은달 9~17일은 각 상임 위원회를 거친 올해 4회 추가경정 세 입·세출 예산안과 내년도 세입·세 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 본심사가 이뤄진다.

예결특위는 위원장에 최명철 의원과 부위원장에 최지는 의원을 중심으로 김학송·박선진·신유정·양영환·이 가동·이병하·장재희·정섬길·채영 병·천서영·한승우 의원 등 모두 13 명으로 구성돼 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의회의 의정활동 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 사와 예산안 심사가 이번 회기에서 다 워지게 된다"며 "그동안 각종 감사 자 료와 예산안 등을 면밀하게 살핀 만큼, 발전적인 감사와 심사가 이뤄질 것으 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 K-FOOD 2.0 시대를 선도하는 KFRI 전략

Next K-Food  
Newly Evolving eXponential Technology

기술로 진화하는 K-푸드의 미래, 세계의 식탁과 식품산업을 바꾸다